

# 광산구, 코로나19 확산 막기 일제 방역

### 민·관 방역종합대책 마련 상가·산업시설·전통시장 등 16일까지 방역활동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에 방역복과 덧신, 소독약 분무기 등 방역장구로 중무장한 이들이 모여들었다.

파란색 바탕에 흰색과 노란색으로 적힌 '광산구행복방재단' 어깨띠를 두른 이들은 오후 3시가 되자 2개조로 나뉘어 선운지구 아파트 주변 상가와 호남대 및 선운근린공원 인근 상가를 각각 순회하며 소독에 나섰다.

상인과 종업원들은 가게 출입문 손잡이와 발판 등 접촉이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소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선운지구 방역소독에 나선 이들은 선운상가번영회(회장 김범주)와 선운지구 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공직자 등 70여명.

같은 날 하남동 산정초교와 산정중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하남동자율방재단과 산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광산구와 함께 방역에 나섰다.

자율방재단 단원으로 참여한 문미원(하남동 통장단 부단장)씨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역사회 일원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 집중 방역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역주민 등 민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시민들이 지난 11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곳곳을 소독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관아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방역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전역을 산업경제 시설, 동별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7개 분야로 나눠 집중 소독에 나서고 있다. 광산구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1000여명을 투입해 지난 10일 하남·어룡동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엔 구 전역으로 방역 범위를 넓혀 방역 취약지역 및 민원 발생 구간을 일제 방역하고 있다.

광산 관내 주둔중인 제1전투비행단도 방역에 힘을 보태고 있다. 비행단은 광산구 관내 주요 도로변에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월·목요일에는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항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송정매일시장과 송정5일시장 상인들도 고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점포와 시장 통로 및 공용화장실 등을 집중 소독 중이다. 11일 현재 광산지역 방역에 참여한 누적 인원은 시민 2050명, 공무원 530명 등 2580명으로, 162개 팀으로 나눠 총 1085곳을 1차 방역했다. 광산구는 일단 오는 16일까지 방역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광산구는 관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5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 긴급조치를 위한 재난기금 4억5000만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특히 가짜뉴스 등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선 하루 2차례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응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을 통장단 및 공무원 동가 4000여명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확산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13호 소식을 전달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광산구 환경생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보일러 대리점 등 공급자에게 위임해 일괄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는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 되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란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구청 방문 보다는 보일러 대리점을 통한 일괄 신청을 추천드린다"고 조언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광산ON' 개설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최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의 앱(APP)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주민과 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광산ON(온)' 앱(APP)의 활성화를 설명하고, 본격 운영 체계에 들어갔다.

광산ON은 광산구 시민소통 채널 중 하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 제안 등 구성 참여도 가능하다.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는 앱 안에서 20일 동안 공표 50표 이상을 받으면, 30일간 다른 시민과 공유·검토하는 논의단계를 거쳐 광산구 관련 부서로 보내진다.

이 과정을 거친 아이디어 중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은 즉시, 예산사업은 예산 확보 후 실행된다.

앱에는 정책제안 외에도 공동체방 개설로 자유로운 대화와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는 '소통광장', 주민총회 등 각종 회의의 현장투표가 가능한 '주민투표', 나누고 싶은 물품과 장소 등 정보를 등록하는 '공유마당' 기능도 포함돼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찾아가는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광산ON의 운영으로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중심 민관 협치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보조금으로 보일러 바꾸고 환경도 보호

### 광산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7일부터 접수

광주 광산구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몸에 해로운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줄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다.

광산 구민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1대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1대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 1억13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 6만1900kcal 미만인 보일러이며, 올해 설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0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 광주시, 26~28일 접수 ...총 사업비 31억3000만원

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0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시각예술진흥, 공연예술진흥, 문학진흥 분야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전시콘텐츠·공연콘텐츠 등이 다. 총 사업비는 31억30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신청 관련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다.

법인·단체별로 2개 사업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사업 신청 시 자부담을 총사업비의 5% 이상 의무 부담해야 한다.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2020년 국비 또는 지방비(문화재단 포함) 지원사업, 타 사·도에 이중 지원된 사업,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1층 민원실 접수창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 및 인터뷰 심사, 2차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등 2 단계를 거쳐 지원 단계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준영 광주시 광주시문화관광체육실장은 "올해 문화예술분야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 공모로 추진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폭 확대

### 5등급 5500대 감축 목표

### 18일부터 인터넷·우편 접수

광주시가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달엔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3월2일부터 3월5일까지 시청 1층에서 방문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광주시 기후대기과에 조기폐차 신청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시

시정 공고문에서 내려받거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다만 그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확인은 지역번호+114, 콜센터(1833-7435),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면 일반 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예 체험교실 교육생 모집

###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 '자라나는 새싹 농부 체험교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라나는 새싹 농부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자라나는 새싹 농부 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화분에 식물을 심고 기르는 원예 체험 활동과 아열대 식물원 견학 등 농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3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총 2차(1차 2월, 2차 8월)로 나눠 선착순 모집하며, 1차 모집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다.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eunda060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양희열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체험교실이 어린이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062-613-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www.yhbeco.co.kr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